



2012 1Q League Table

CONTENTS

I Cover Story

1. 중위권 증권사·회계법인 대약진
2. DCM에선 ‘한투’, ECM에선 ‘키움’과 ‘동양’ 깜짝 돌출

II Market Report

1. ECM
고위험 감수한 딜 ‘주목’
2. DCM
새로운 강자의 부상
3. M&A
자문 판도의 변화
4. ELS / DLS
대우증권, ELS와 DLS에서 ‘선두’
5. PEF
청산 PEF 성과, 국내 최초 분석

III Supplement

1. ECM
2. DCM
3. M&A
4. PEF
5. ELS / DLS
6. FEES

I Cover Story

1. 중위권 증권사·회계법인 대약진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이 2012년 1분기 국내 인수·합병(M&A) 재무 자문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증권사를 따돌리고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주식자본시장(ECM) 분야에서는 대우증권과 동양증권이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채권자본시장(DCM)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과 에프엔가이드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국내 자본시장 주관사 실적과 거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2년 1분기에는 IB 전통 강자들의 선두권 수성 속에 중견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M&A 분야에서는 발표기준(잠정협약, 본계약 체결)으로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이 1,2위를 기록한 가운데 KB증권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과 함께 3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그 뒤를 이었다. 법률자문 부문에서는 김앤장의 독주가 이어졌다.

ECM 주관 순위 1위는 대우증권이 차지했다. 뒤이어 동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이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연계증권(ELB) 분야에서는 동양증권이 1위를 기록했다. 2월부터 대표 주관사의 기업실사가 의무화되면서 대형사 간 격전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DCM 분야에선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3조475억원(10.98%)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해 2011년 연간 실적보다 순위가 4계단 상승했다. 반면 작년 주관순위 1, 2위였던 우리투자증권과 한국산업은행은 각각 6위와 11위로 밀리며 주춤했다.

2. DCM에선 ‘한투’, ECM에선 ‘키움’과 ‘동양’ 깜짝 돌출

2012년 1분기 국내 자본시장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가운데 그동안 선두업체에 밀려있던 증권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업 인수(발표·바이아웃딜 기준) 분야에서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이 국내외 증권사들을 제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자본시장(DCM) 분야에서는 지난해 연간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5위였던 한국투자증권이 선두자리에 올랐고 주식자본시장(ECM) 분야에서는 대우증권과 동양증권이 국내 투자은행(IB) 강자인 우리투자증권을 제쳤다. 1분기 딜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다보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2012년은 회계법인과 증권증권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1) ECM : 대우, ‘고섬’ 악몽 극복하고 정상 탈환

ECM 부문 선두는 전통의 IB 강자인 대우증권이 잡았다. 고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동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ECM 주관 순위 1위는 대우증권이 차지했다. 대우증권은 총 2644억원 규모의 주관 2건으로 35.98%를 점유했다. 동양증권이 2500억원을 주관해 2위를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8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리그테이블을 휩쓸었던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ECM 주관 3위에 그쳤다. 뒤이어 키움증권 대신증권 KB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 주관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ECM 분야를 나눠보면 기업공개(IPO) 주관 부문에선 대우증권이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대우증권에 이어 주관부문 2위를 기록했다. KB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3위~5위를 차지했으며 주관 실적은 모두 1건씩 불과했다. 유상증자 주관부문 역시 대우증권이 거래금액 643억원으로 1위였다. 그동안 ‘IB약체’로 여겨졌던 키움증권이 505억원 실적을 올려 2위로 도약했다.

주식연계증권(ELB) 부문의 최대 주관 실적은 2500억원짜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따낸 동양증권의 차지였다. 유진투자증권이 전환사채(CB) 50억원을 주관해 뒤를 이었다. 김현영 대우증권 상무는 “1분기 중 IPO 물량이 적었던 데다 자본시장법 개정 전 분리형BW 발행 축소, 기업실사 모범규준 채택 등으로 전체적인 ECM 시장이 위축됐다”면서 “1분기 선두를 차지한 만큼 연말까지 1위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DCM : 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 약진

한국투자증권이 DCM 주관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012년 2월부터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기업공개(IPO) 부문에서 갈고닦은 실사 능력이 빛

을 발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간 리그테이블에서는 5위를 차지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2년 1~3월 3조475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 전체 주관금액 27조 7550억원의 10.98%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리그테이블은 채권인수 영업과 관련성이 적은 은행 채와 사모사채는 집계에서 제외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포함됐다. 박종길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담당 상무는 “국내 최대 기업공개 경험을 통해 쌓은 실사역량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믿고 대표주관을 맡겼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중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58건(공동주관 포함)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KB투자증권(주관금액 점유율 9.41% 2위) 삼성증권(9.39% 3위) 대우증권(9.32% 4위) 신한금융투자(8.75% 5위) 우리투자증권(8.43% 6위) SK증권(8.02% 7위) 동양증권(7.98% 8위) 등이 5% 이상의 점유율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5위와 8위였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4계단과 3계단 뛰어오르며 상위권에 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반대로 작년 1위와 2위였던 우리투자증권과 산업은행은 5계단과 9계단 미끄러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은 올들어 회사채를 시장에 팔지 못해 떠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3) M&A : 한산한 분위기 속 회계법인·로펌 부각

1분기 인수·합병(M&A) 분야의 선두주자는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이었다. 삼일PwC는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경기고속도로 지분을 묶은 패키지 M&A딜의 재무자문을 맡은데 힘입어 발표 기준(양해각서 또는 본계약 체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1분기 유일하게 거래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딜로이트안진도 2건의 거래를 자문해 2위 자리에 올랐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골드만삭스와 HSBC가 6,7위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자존심을 지켰다.

M&A 종료 기준(인수잔금 납입) 순위로는 크레디트스위스가 1위에 올랐고 2위는 하나대투증권이 차지했다. 3위는 우리투자증권 BoA메릴린치 NH투자증권 맥쿼리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산업은행 등 6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올랐다. 모두 하이닉스의 매각 또는 매수측 재무자문을 맡은 증권사들이다 보니 거래금액이 동일했다.

기업인수 회계자문(이하 발표 기준) 부문에서는 딜로이트안진과 삼일PwC가 1,2위에 올라 양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대주회계법인(3위)과 충정회계법인(5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법률자문 부문에서는 김앤장이 선두를 질주했다. 올춘 한결 세종 광장 태평양 바른 지평지성 KCL 화우 현 등도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 합병 분야 법률 자문은 광장이 1위에 올랐고 세종과 김앤장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선 올해 M&A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회계법인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말부터 동양생명 하이마트 웅진코웨이 등 조단위 메가딜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양해각서(MOU)나 본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렇다보니 비교적 소형딜에 강한 회계법인의 강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 메가딜의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부터 외국계 IB와 국내 IB 부문 강자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본시장 성적표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최대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손잡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본시장의 성적표 ‘리그테이블’을 제공한다. 한국경제신문의 정보수집 능력과 에프앤가이드의 체계적인 정보 모델링 및 처리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국내 리그테이블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집계계의 불완전성과 순위의 주관성을 원천 봉쇄하고 객관성을 담보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리그테이블은 인수·합병(M&A) 주식자본시장(ECM) 채권자본시장(DCM)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67개 부문의 실적 순위를 실시간으로 매기고 공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방대하고 세분화된 자본시장 성적표다.

국내외 증권사나 회계·법무법인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거둔 자문·주관 실적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도 순위를 매겨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업계 판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최근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추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실적도 리그테이블 구성 항목에 포함된다.

M&A 분야는 거래의 성격(인수와 합병), 거래 시점(해당 기간에 처음 계약이 체결된 ‘발표 시점 기준’과 잔금 지급이 완전히 끝난 ‘완료 시점 기준’), 각 플레이어들의 역할(금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을 반영해 총 16개 항목으로 리그테이블을 제공한다.

ECM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연계채권(ELB) 부문에서 각 증권사의 대표주관·공동주관·인수·모집주선 실적을 토대로 리그테이블을 산출한다. M&A와 마찬가지로 17개 하위 부문으로 나뉜다.

DCM은 어떤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얼마나 많이 취급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회사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채권 종류별로 증권사가 일정한 역할(대표주관, 공동주관, 인수)을 맡아 발행을 성사시킨 실적을 제시한다. 어느 기업이나 그룹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는지에 대한 순위도 함께 집계한다. DCM 리그테이블은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Fee(수수료) 분야는 증권사들이 ECM과 DCM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수수료 수익을 거뒀는지를 8개 세부 부문으로 나눠 제시한다. ELS·DLS는 각 증권사가 발행한 ELS와 DLS를 공모와 사모로 분류, 총 7개 부문에 대한 발행실적 순위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역대 청산 PEF 운용실적 순위도 공개한다.

한국경제신문 리그테이블은 국내 최초로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회사채 등 발행시장의 주관 및 인수 실적을 하루 두차례 업데이트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존에 발표된 리그테이블이 일반적으로 짧은 한달, 길게는 분기 단위로 작성·공표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 결과는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고품격 자본시장 정보 서비스인 마켓인사이트(www.marketinsight.kr)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자본시장 각 부문 딜에 대한 일정·금액 등 세부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마켓인사이트 핵심서비스 ‘딜 리스트’의 각종 수치가 곧바로 리그테

이블로 자동 집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리그테이블 주요 분야별 항목>

분야	항목수	항목
M&A	16	기업인수 재무자문 종료(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재무자문 발표(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종료(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발표(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종료(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발표(바이아웃 기준) 기업인수 재무자문 종료(통합 기준), 기업인수 재무자문 발표(통합 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종료(통합 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발표(통합 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종료(통합 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발표(통합 기준) 기업합병 재무자문 종료, 기업합병 재무자문 발표, 기업합병 법률자문 종료, 기업합병 법률자문 발표
ECM	17	전체 ECM 주관, 전체 ECM 인수, 전체 ECM 모집주선 기업공개(IPO) 주관, 기업공개(IPO) 인수, 유상증자 주관 유상증자 인수, 유상증자 모집주선,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주식연계증권(ELB) 모집주선, 전환사채(CB) 주관 전환사채(CB) 인수,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주선
DCM	18	전체국내 채권주관, 전체국내 채권대표주관, 전체국내 채권인수 국내채권(ABS 제외) 주관,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주관,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일반회사채(SB) 주관,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 일반회사채(SB) 인수, 여전채(FB) 주관, 여전채(FB) 대표주관, 여전채(FB) 인수,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현황 여전채(FB) 발행규모 상위 기업, 회사채 발행규모 상위 30개 기업
Fees	8	ECM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기업공개(IP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유상증자(IP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주식연계증권(ELB)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DCM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일반 회사채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ELS/DLS	7	ELS 전체 순위, DLS 전체 순위, ELS 공모 순위, DLS 공모 순위 ELS 사모 순위, DLS 사모 순위, 전체 순위
PEF	1	역대 청산 PEF 운용실적 순위

II Market Report

1. ECM 고위험 감수한 딜 ‘주목’

2012년 1분기 주식자본시장(ECM) 순위는 ‘양보다는 질’에 좌우됐다.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동안 단 1건이라도 고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투자은행(IB)들이 빛을 받았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1~3월 EC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총 2644억원을 주관해 1위를 기록했다. 대우증권은 공모금액 2000억원으로 1분기 기업공개(IPO) 최대어였던 휴비스를 주관해 ECM 전체 순위 뿐 아니라 IPO 부문에서도 선두를 휘어잡았다.

시장에서 대우증권을 주목했던 것은 바로 643억원짜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건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사전 정보 유출 논란,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요구 등 이어지는 잡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엠의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주배정예선 98.2%가 증자에 참여했고 실권주 일반 청약경쟁률은 1000대 1이 넘었다.

ECM 주관 2위는 STX팬오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 1건으로 동양증권이 차지했다. STX 팬오션 BW는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꽃이었다. 2500억원 모집에 5조원이 넘게 몰렸다. 그룹 리스크에 업황 부진까지 겹쳐있고 지난해 계열사 STX조선해양 BW에서 실권주가 대량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이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STX조선해양 실권주 280억원을 떠안은 데 이어 STX팬오션도 1000억원 잔액인수를 약속하는 등 STX그룹의 ‘금융주치의’를 자처한 보상을 받았다는 평가다.

권광호 동양증권 IB본부장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단세포 비즈니스’는 하지 않겠다”면서 “기업을 꾸준히 도우며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패키지 서비스’를 하는 IB명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ECM 주관 4위를 기록한 키움증권은 한솔테크닉스 유상증자에 첫 단독 주관을 맡아 증자 물량 전체에 대해 잔액인수 계약을 맺는 공격적 행보를 보였다. 한솔테크닉스 유증엔 주주 92%가 청약하고 일반 공모에서도 1조8000억원이 몰려, 결국 키움증권은 잔액 인수 부담없이 1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키움증권은 2012년 IB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태세다. 그동안 IB실적이 전무했던 키움증권은 2012년 초 대량매매(블록딜) 주관에 깜짝 데뷔한 데 이어 한솔테크닉스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또 2012년 IPO 7~8건을 준비하고 있어 리그테이블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최창민 키움증권 IB본부장은 “그동안 준비해 온 딜(거래)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면서 “IPO가 여러건 예정돼 있고 블록딜도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리그테이블을 휩쓸었던 우리투자증권은 ECM 주관 3위에 머물렀다. 동아팜텍(544억원)과 코오롱패션머티리얼(435억원)의 상장 주관을 맡았다. 하반기 ‘빅딜’인 현대오일뱅크와 LG실트론이 상장에 성공하면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이 만회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대신증권과 KB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ECM주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 DCM 새로운 강자의 부상

2012년 1분기 채권자본시장(DCM)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선전이 돋보였다. 기업실사 의무화 등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기업그룹과 폭 넓게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투자증권은 DCM의 전통적인 강호인 우리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국내 채권 주관 부문에서 선두에 섰다.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2012년 1분기(1~3월) DC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총 58건, 3조475억원의 국내 채권을 주관해 1위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한국투자증권의 주관 실적은 총 36건, 2조6054억원을 주관한 삼성증권과 총 32건, 2조5880억원을 주관한 대우증권을 월등하게 앞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채권 대표주관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채권 주관·대표주관·인수 부문에서도 모두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채권 인수 부문에서는 삼성증권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인수 금액 차이가 1438억원에 그쳤다. 오히려 인수 건수는 30건이 더 많았다.

박종길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기업공개(IPO) 경험이 많아 다른 투자은행(IB)에 비해 기업실사 역량과 필요한 인력을 이미 잘 갖추고 있었다"며 "회사채 발행 제도 개선이 낫선 기업들이 이 같은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DCM 및 ABS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 주관 실적

◆전체 DCM 주관실적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3,047,500	58	10.98
2	케이비 투자 증권	2,611,445	54	9.41
3	삼성증권	2,605,447	36	9.39
4	대우증권	2,588,000	32	9.32
5	신한금융투자	2,429,105	46	8.75
6	우리투자증권	2,338,683	31	8.43
7	SK증권	2,227,000	36	8.02
8	동양증권	2,215,000	42	7.98
9	현대증권	1,205,610	35	4.34
10	하나대투증권	1,085,000	32	3.91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부증권	787,000	15	15.13
2	한국투자증권	725,000	18	13.94
3	현대증권	587,000	19	11.28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70,000	13	10.96
5	SK증권	467,000	9	8.98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신한금융투자	857,000	22	17.68
2	하나대투증권	805,000	27	16.6
3	SK증권	570,000	17	11.76
4	케이비 투자 증권	528,550	14	10.90
5	삼성증권	431,200	11	8.89

한국투자증권은 다양한 대기업그룹의 회사채를 고르게 주관했다. 현대오일뱅크 현대다이모스 웅진홀딩스 SK케미칼 등이다. 아주렌탈 한국복합물류 CJ건설 등 BBB급 회사채 주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BS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앞서 나갔다. 총 22건, 8570억원의 ABS를 주관하며 1위에 올랐다. 하나대투증권이 총 27건, 8050억원의 ABS를 주관해 신한금융투자의 뒤를 따라붙었다.

ABS 대표주관은 신한금융투자가 33.5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하나대투증권 KDB산업은행 등 다른 IB들을 압도했다. ABS 주관 부문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약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G유플러스의 유동화 작업에 참여한 영향이 컸다.

허홍권 신한금융투자 DCM부 팀장은 "신한금융그룹 기업투자금융(CIB) 조직이 출범하면서 은행과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며 "2분기에도 CIB 조직의 장점을 살려 구조화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시장에서는 동부증권의 돌풍이 거셌다. 여전채 시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을 제치고 주관·대표주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동부증권은 총 15건, 7870억원의 여전채를 주관해 15.1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동부증권이 대표주관 업무를 맡은 NH농협캐피탈의 7년 만기 여전채는 기관투자자들과 발행사를 모두 만족시킨 딜(deal)로 꼽혔다.

이명환 동부증권 크레디트본부장은 "국고채 위주의 채권영업팀을 회사채·여전채에 특화된 크레디트 영업팀으로 개편하고 인수시장을 공략한 게 효과적이었다"며 "기관투자자들에 정례적으로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발행사가 적기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3. M&A 자문 ‘판도 변화’

1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국내외 투자은행(IB)들의 틈바구니에서 회계법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1분기 인수(발표·바이아웃 기준) 부문에서 삼일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경기고속도로 패키지와 삼양사 사료사업부문 M&A의 매수자문을 맡는 등 총 4건의 딜을 성사시켰다. 딜로이트안진은 반얀트리호텔앤스파와 제일저축은행의 인수자문을 맡았다.

회계법인의 약진 속에 IB들은 체면치레에 그쳤다. 반얀트리호텔앤스파 매각자문을 맡은 우리투자증권, 제일저축은행 딜을 맡은 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삼성전기의 알파나테크놀로지 인수를 처리한 골드만삭스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삼일회계법인	1,029,222	4
2	딜로이트안진	340,000	2
3	KB투자증권	170,000	1
3	대우증권	170,000	1
3	우리투자증권	170,000	1
6	골드만삭스	147,000	1
7	HSBC	108,022	1
8	HMC투자증권	67,000	1
8	로스차일드	67,000	1
8	삼성증권	67,000	1

발표는 MOU 또는 본계약 체결 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딜로이트안진	1,362,722	5
2	삼일회계법인	1,078,722	5
3	대주회계법인	340,000	2
4	한영회계법인	108,022	1
5	삼정KPMG	33,064	1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크레디트스위스	7,290,300	2
2	하나대투증권	3,915,600	1
3	BoA메릴린치	3,374,700	1
3	NH투자증권	3,374,700	1
3	맥쿼리증권	3,374,700	1
3	신한금융투자	3,374,700	1
3	우리투자증권	3,374,700	1
3	한국산업은행	3,374,700	1
9	딜로이트안진	712,560	7
10	대우증권	540,000	4

종료는 인수잔금납입 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1,882,459	10
2	윌촌	949,922	1
2	한결	949,922	1
4	세종	399,650	5
5	광장	348,239	6

회계법인들은 앞으로 M&A 재무자문 분야에서 IB의 영역을 잠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M&A 분야에만 5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거느리고 있다. 이 중 180여명이 재무자문을 맡는 기업금융(CF) 파트다. 국내 IB와 회계법인을 통틀어 M&A 자문조직 중 최대 규모다.

한 증권사 M&A 본부장은 “기업들은 지금까지 회계법인에 회계자문만을 맡겼지만 최근 재무자문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PwC, 딜로이트 등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회계법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로 꼽힌다. 이종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회계법인들이 해외 매물, 매수후보 발굴에 강점을 지니다 보니 최근 증가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크로스보더 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단위 대형 M&A에는 아직까지 회계법인이 재무자문을 맡을 여지가 낫다는 반론도 있다. 때

문에 동양생명, 웅진코웨이 등 메가딜이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는 IB들이 리그테이블 선두로 치고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 자문분야의 종료 기준 리그테이블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잔금 납입까지 마친 종료 딜을 기준으로 보면 크레디트스위스, 하나대투증권, BoA메릴린치, NH농협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외 IB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1분기에 끝난 하이닉스와 외환은행 M&A를 이들이 나눠 맡았기 때문이다.

기업인수(바이아웃 기준) 법률 자문에서는 김앤장이 독주하는 가운데 율촌이 2위에 올랐다. 김앤장은 1분기 종료기준, 발표 기준, 바이아웃 기준, 통합기준(바이아웃, 논바이아웃, 자산매각 포함) 등 각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딜 건수에서도 다른 로펌들을 따돌렸다. 하이닉스와 외환은행 M&A는 물론 LG생활건강의 일본 긴자스테파니 인수, 한전의 캐나다 스트라스모어 지분 인수 등 크로스보더 딜에도 적극 뛰어든 결과다. 태평양은 1분기 발표·바이아웃 기준 순위에서 6위에 머물렀을 뿐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2위에 올라 김앤장을 추격했다.

4. 대우증권, ELS와 DLS에서 ‘선두’

대우증권이 2012년 1분기에 주가연계증권(ELS)을 가장 많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공모 ELS에, 하나대투증권은 사모 ELS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공동으로 집계한 증권사별 1분기 ELS 발행 순위를 보면 대우증권의 총 발행액이 1조929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15.12%에 달해 10.95%로 2위에 그친 우리투자증권(발행액 1조3978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지난해에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시장점유율 약 13%를 기록하며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점유율 10.35%의 하나대투증권(1조3213억원), 9.64%를 기록한 신한금융투자(1조2303억원), 8.35%의 미래에셋증권(1조659억원) 등도 1조원 이상 ELS를 발행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한국투자증권(9328억원) 동양증권(8586억원) 현대증권(7481억원) 대신증권(6746억원) 신영증권(5148억원) 삼성증권(4991억원) IBK투자증권(2761억원) 한화증권(2540억원) 교보증권(2206억원) NH투자증권(1960억원) 등이 따랐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은 특히 공모 ELS 발행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총 발행순위 5위에 그친 이 증권사는 공모 발행에서는 7557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사모 ELS 발행은 하나대투증권이 1조 1330억원으로 대우증권에 이어 2위에 올라 강한 모습을 보였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서도 대우증권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이 증권사는 사모와 공모 합쳐 총 1조3334억원 규모의 DLS를 1분기에 발행해 1위에 올랐다. 점유율은 25.5%에 달했다. 2위는 점유율 21.6%, 발행금액 1조1308억원을 기록한 우리투자증권이 차지했다. 두 증권사는 DLS 발행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증권(6204억원) 하나대투증권(2893억원) NH투자증권(2685억원) 한국투자증권(2273억원) 삼성증권(2224억원) 신한금융투자(1896억원) 메리츠종금증권(1627억원) 대신증권(1563억원) 순이었다.

5. 청산 PEF 성과, 국내 최초 분석

IMM인베스트먼트와 신한캐피탈이 공동으로 운용한 ‘페트라 사모투자펀드(PE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PEF로 선정됐다. 국내 1호 PEF가 나온 2004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청산된 PEF들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이 PEF들의 실적을 집계, 순위를 매긴 결과 페트라는 2년 동안 78.25%의 총수익률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40.46%라는 높은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H&Q의 ‘H&Q·국민연금제1호’가 연평균 19.02%의 수익률로 2위에 올랐다. 이 PEF는 5년 동안 총 96.17%의 수익률을 올려 총수익률에서는 페트라를 압도했다.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파트너스1호’도 연평균 17.33%의 수익률(5년 총수익률 86.20%)로 3위를 차지했다. 2, 3위를 차지한 두 PEF는 투자금을 먼저 모집한 뒤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블라인드형’이라는 점에서 이미 정해진 곳에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형’보다 운용 및 관리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률면에서는 페트라를 압도하며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어 기업은행과 SK증권의 ‘IBK-SKS제2호’(연평균 12.35%)가 4위, 산업은행의 ‘KEB밸류2호’(연평균 11.97%)가 5위를 각각 차지했다.

<PEF 운용실적>

(단위: 억원, %)

순위	PEF	GP	투자기간	총약정액	투자수익금	총 투자수익률	연 수익률
1	페트라	신한캐피탈, IMM 인베스트먼트	2년	420	313	78.25	40.46
2	H&Q 국민연금 제1호	H&Q	5년	3,000	2337	96.17	19.02
3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	5년	1,400	1118	86.20	17.33
4	IBK-SKS제2호	중소기업은행, SK증권	2.5년	171	46	30.67	12.35
5	KDB밸류제2호	산업은행	5년	4,000	1955	58.66	11.97
6	리더스	SK증권, 산은캐피탈	2.86년	3,100	905	31.22	10.85
7	KDB밸류제1호	산업은행	4.83년	3,000	878	31.90	6.52
8	기업은행-KTB제1호	중소기업은행, KTB투자증권	5년	1,200	321	24.94	5.0
9	유진자산제1호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3.91년	250	28	12.73	3.29
10	씨에프인베스트먼트제1호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3.33년	501	39	6.25	1.88

* 역대 청산 PEF 기준

IMM인베스트먼트와 H&Q 등 이른바 ‘독립계 운용사(GP)’가 좋은 성적을 나타낸 반면 금융사 계열 GP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우리은행이 2004년 12월 결정한 ‘우리1호’는 9개월 만에 5.52%의 총수익률로 청산됐다. 한국투자증권 계열의 코너스톤에쿼티가 2008년 만든 ‘CEP제2호’도 투자집행 없이 2010년 해산했다.

PEF의 실적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모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어 GP들이 실적 공개를 꺼려 집계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도 1조원 이상의 PEF자금을 운용하는 GP가 속속 등장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개별 PEF의 실적을 취합한 뒤 해당 GP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상 만기청산 기간이 5~7년으로, 기업에 중·장기 투자하는 PEF의 특성상 2년 미만에 조기 청산된 PEF는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제외했다. 약정액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을 산정한 뒤 투자기간으로 나눠 순위를 매겼다.

III Supplement

1. ECM

1-1. 전체 ECM 주관

전체 ECM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64,461	2	35.98
2	동양증권	250,000	1	34.01
3	우리투자증권	81,586	2	11.10
4	키움증권	50,537	1	6.88
5	대신증권	18,000	1	2.45
6	KB투자증권	16,322	1	2.22
7	현대증권	12,150	1	1.65
8	한국투자증권	11,259	1	1.53
9	HMC투자증권	9,000	1	1.22
10	유진투자증권	8,000	2	1.09
11	교보증권	5,250	2	0.71
12	한화증권	5,000	1	0.68
13	미래에셋증권	3,432	1	0.47

1-2. 전체 ECM 인수

전체 ECM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44,447	2	33.26
2	동양증권	104,350	2	14.20
3	우리투자증권	62,004	2	8.44
4	키움증권	52,360	2	7.12
5	KB투자증권	36,322	2	4.94
6	한국투자증권	31,259	2	4.25
7	SK증권	30,896	2	4.20
8	현대증권	30,328	2	4.13
9	이트레이드증권	30,000	1	4.08
10	유진투자증권	27,000	3	3.67
11	한화증권	25,000	2	3.40
12	LIG투자증권	20,000	1	2.72
13	HMC투자증권	9,000	1	1.22
14	교보증권	6,250	3	0.85
15	한양증권	6,000	2	0.82
16	대신증권	5,000	1	0.68
16	솔로몬투자증권	5,000	1	0.68
17	하나대투증권	4,350	1	0.59
18	미래에셋증권	3,432	1	0.47
19	부국증권	2,000	1	0.27

1-3. 전체 ECM 모집 주선

전체 ECM 모집주선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우리투자증권	160,993	1	59.65
2	솔로몬투자증권	20,356	2	7.54
3	한양증권	19,777	5	7.33
4	교보증권	13,730	2	5.09
5	유진투자증권	11,020	3	4.08
6	한화증권	10,875	2	4.03
7	대신증권	8,417	1	3.12
7	부국증권	8,417	1	3.12
7	하이투자증권	8,417	1	3.12
8	미트레이드증권	7,893	3	2.92

1-4. 기업공개(IPO) 주관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00,141	1	61.23
2	우리투자증권	81,586	2	24.96
3	KB투자증권	16,322	1	4.99
4	현대증권	12,150	1	3.72
5	HMC투자증권	9,000	1	2.75
6	교보증권	4,250	1	1.30
7	미래에셋증권	3,432	1	1.05

1-5. 기업공개(IPO) 인수

기업공개(IPO)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80,127	1	55.10
2	우리투자증권	62,004	2	18.97
3	SK증권	30,896	2	9.45
4	KB투자증권	16,322	1	4.99
5	현대증권	10,328	1	3.16
6	HMC투자증권	9,000	1	2.75
7	동양증권	4,350	1	1.33
7	하나대투증권	4,350	1	1.33
8	교보증권	4,250	1	1.30
9	미래에셋증권	3,432	1	1.05
10	키움증권	1,823	1	0.56

1-6. 유상증자 주관

유상증자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64,320	1	42.01
2	키움증권	50,537	1	33.01
3	대신증권	18,000	1	11.76
4	한국투자증권	11,259	1	7.35
5	한화증권	5,000	1	3.27
6	유진투자증권	3,000	1	1.96
7	교보증권	1,000	1	0.65

1-7. 유상증자 인수

유상증자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64,320	1	42.01
2	키움증권	50,537	1	33.01
3	한국투자증권	11,259	1	7.35
4	대신증권	5,000	1	3.27
4	솔로몬투자증권	5,000	1	3.27
4	한양증권	5,000	1	3.27
4	한화증권	5,000	1	3.27
5	유진투자증권	3,000	1	1.96
6	교보증권	2,000	2	1.31
6	부국증권	2,000	1	1.31

1-8. 유상증자 모집주선

유상증자 모집주선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우리투자증권	160,993	1	63.42
2	솔로몬투자증권	20,356	2	8.02
3	한양증권	15,653	2	6.17
4	교보증권	13,730	2	5.41
5	한화증권	10,875	2	4.28
6	대신증권	8,417	1	3.32
6	부국증권	8,417	1	3.32
6	하이투자증권	8,417	1	3.32
7	유진투자증권	6,000	1	2.36
8	미트레이드증권	999	1	0.39

1-9.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양증권	250,000	1	98.04
2	유진투자증권	5,000	1	1.96

1-10.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양증권	100,000	1	39.22
2	미트레이드증권	30,000	1	11.76
3	유진투자증권	24,000	2	9.41
4	KB투자증권	20,000	1	7.84
4	LIG투자증권	20,000	1	7.84
4	한국투자증권	20,000	1	7.84
4	한화증권	20,000	1	7.84
4	현대증권	20,000	1	7.84
5	한양증권	1,000	1	0.39

1-11. 주식자계증권(ELB) 모집주선

주식연계증권(ELB) 모집주선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이트레이드증권	6,894	2	42.98
2	유진투자증권	5,020	2	31.30
3	한양증권	4,125	3	25.72

1-12. 전환사채(CB) 주관

전환사채(C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5,000	1	100.00

1-13. 전환사채(CB) 인수

전환사채(CB)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4,000	1	80.00
2	한양증권	1,000	1	20.00

1-14.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1,020	1	33.56
1	한양증권	1,020	1	33.56
2	이트레이드증권	999	1	32.88

1-15.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양증권	250,000	1	100.00

1-16.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양증권	100,000	1	40.00
2	이트레이드증권	30,000	1	12.00
3	KB투자증권	20,000	1	8.00
3	LIG투자증권	20,000	1	8.00
3	유진투자증권	20,000	1	8.00
3	한국투자증권	20,000	1	8.00
3	한화증권	20,000	1	8.00
3	현대증권	20,000	1	8.00

1-17.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 주선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주선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이트레이드증권	5,895	1	45.34
2	유진투자증권	4,000	1	30.77
3	한양증권	3,105	2	23.89

2. DCM

2-1. 전체 국내채권 주관

전체 국내채권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3,047,500	58	10.98
2	KB투자증권	2,611,445	54	9.41
3	삼성증권	2,605,447	36	9.39
4	대우증권	2,588,000	32	9.32
5	신한금융투자	2,429,105	46	8.75
6	우리투자증권	2,338,683	31	8.43
7	SK증권	2,227,000	36	8.02
8	동양증권	2,215,000	42	7.98
9	현대증권	1,205,610	35	4.34
10	하나대투증권	1,085,000	32	3.91
11	한국산업은행	852,995	14	3.07
12	동부증권	787,000	15	2.84
13	대신증권	670,000	8	2.41
14	IBK투자증권	664,000	17	2.39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90,000	16	2.13
16	한화증권	453,930	9	1.64
17	이트레이드증권	385,826	9	1.39
18	교보증권	270,000	13	0.97
19	HMC투자증권	240,000	7	0.86
20	LIG투자증권	100,000	3	0.36
21	하이투자증권	88,000	3	0.32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70,000	2	0.25
23	KTB투자증권	60,000	2	0.22
24	미래에셋증권	50,000	2	0.18
25	신영증권	40,000	1	0.14
26	부국증권	30,000	1	0.11
26	키움증권	30,000	1	0.11
27	금호종합금융	15,000	2	0.05
28	NH투자증권	7,000	1	0.03

2-2. 전체 국내채권 대표주관

전체 국내채권 대표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2,787,500	48	12.38
2	대우증권	2,368,000	25	10.52
3	삼성증권	2,275,447	23	10.11
4	우리투자증권	2,128,683	23	9.46
5	신한금융투자	1,949,105	36	8.66
6	동양증권	1,945,000	33	8.64
7	KB투자증권	1,781,445	20	7.91
8	SK증권	1,595,000	22	7.08
9	현대증권	945,610	23	4.20
10	동부증권	787,000	15	3.50
11	하나대투증권	595,000	10	2.64
12	IBK투자증권	564,000	12	2.51
13	대신증권	560,000	5	2.49
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60,000	14	2.49
14	한화증권	453,930	9	2.02
15	이트레이드증권	385,826	9	1.71
16	HMC투자증권	240,000	7	1.07
17	한국산업은행	172,995	1	0.77
18	LIG투자증권	100,000	3	0.44
1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70,000	2	0.31
20	KTB투자증권	60,000	2	0.27
21	하이투자증권	58,000	1	0.26
22	신영증권	40,000	1	0.18
23	교보증권	30,000	1	0.13
23	미래에셋증권	30,000	1	0.13
23	키움증권	30,000	1	0.13

2-3. 전체 국내채권 인수

전체 국내채권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삼성증권	2,423,773	74	8.73
2	한국투자증권	2,280,000	104	8.21
3	SK증권	2,277,000	53	8.20
4	우리투자증권	2,188,683	66	7.89
5	신한금융투자	2,126,000	74	7.66
6	KB투자증권	2,033,550	74	7.33
7	대우증권	1,744,000	80	6.28
8	현대증권	1,515,610	78	5.46
9	한국산업은행	1,332,995	35	4.80
10	동양증권	1,290,000	56	4.65
11	하나대투증권	1,185,000	47	4.27
12	IBK투자증권	984,000	46	3.55
13	하이투자증권	718,000	38	2.59
14	동부증권	702,000	41	2.53
15	한화증권	623,930	35	2.25
16	HMC투자증권	565,000	35	2.04
17	대신증권	550,000	25	1.98
18	LIG투자증권	490,000	27	1.77
19	이트레이드증권	465,000	28	1.68
2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70,000	17	1.33
2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10,000	19	1.12
22	교보증권	290,000	16	1.04
23	미래에셋증권	260,000	19	0.94
24	키움증권	195,000	15	0.70
25	KTB투자증권	180,000	14	0.65
26	부국증권	130,000	9	0.47
26	신영증권	130,000	11	0.47
26	유진투자증권	130,000	12	0.47
27	솔로몬투자증권	68,000	7	0.24
28	금호종합금융	55,000	8	0.20
29	NH투자증권	54,000	5	0.19
30	한양증권	50,000	4	0.18
31	BS투자증권	30,000	3	0.11
3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0,000	1	0.04

2-4. 국내채권(ABS 제외) 주관

국내채권(ABS 제외)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2,897,500	57	12.65
2	대우증권	2,385,000	21	10.41
3	우리투자증권	2,240,000	28	9.78
4	동양증권	2,175,000	41	9.49
5	삼성증권	2,174,247	25	9.49
6	KB투자증권	2,082,895	40	9.09
7	SK증권	1,657,000	19	7.23
8	신한금융투자	1,572,105	24	6.86
9	현대증권	867,000	21	3.78
10	동부증권	787,000	15	3.44
11	대신증권	670,000	8	2.92
12	IBK투자증권	664,000	17	2.90
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70,000	13	2.49
14	한국산업은행	522,995	10	2.28
15	이트레이드증권	370,826	7	1.62
16	하나대투증권	280,000	5	1.22
17	한화증권	262,500	4	1.15
18	HMC투자증권	210,000	2	0.92
19	LIG투자증권	100,000	3	0.44
20	하이투자증권	88,000	3	0.38
2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70,000	2	0.31
22	KTB투자증권	60,000	2	0.26
23	미래에셋증권	50,000	2	0.22
24	신영증권	40,000	1	0.17
25	교보증권	30,000	1	0.13
25	부국증권	30,000	1	0.13
25	키움증권	30,000	1	0.13
26	금호종합금융	15,000	2	0.07
27	NH투자증권	7,000	1	0.03

2-5.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 주관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2,637,500	47	13.21
2	대우증권	2,325,000	19	11.65
3	삼성증권	2,124,247	22	10.64
4	우리투자증권	2,030,000	20	10.17
5	동양증권	1,905,000	32	9.54
6	KB투자증권	1,492,895	16	7.48
7	SK증권	1,420,000	14	7.11
8	신한금융투자	1,092,105	14	5.47
9	현대증권	847,000	20	4.24
10	동부증권	787,000	15	3.94
11	IBK투자증권	564,000	12	2.83
12	대신증권	560,000	5	2.81
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40,000	11	2.71
14	미트레이드증권	370,826	7	1.86
15	한화증권	262,500	4	1.32
16	HMC투자증권	210,000	2	1.05
17	하나대투증권	200,000	1	1.00
18	한국산업은행	172,995	1	0.87
19	LIG투자증권	100,000	3	0.50
2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70,000	2	0.35
21	KTB투자증권	60,000	2	0.30
22	하이투자증권	58,000	1	0.29
23	신영증권	40,000	1	0.20
24	교보증권	30,000	1	0.15
24	미래에셋증권	30,000	1	0.15
24	키움증권	30,000	1	0.15

2-6.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2,130,000	103	9.30
2	우리투자증권	2,090,000	63	9.12
3	삼성증권	1,992,573	63	8.70
4	SK증권	1,707,000	36	7.45
5	신한금융투자	1,570,000	52	6.85
6	KB투자증권	1,525,000	60	6.66
7	대우증권	1,390,000	61	6.07
8	동양증권	1,250,000	55	5.46
9	현대증권	1,177,000	64	5.14
10	IBK투자증권	984,000	46	4.30
11	한국산업은행	932,995	27	4.07
12	하이투자증권	718,000	38	3.13
13	동부증권	702,000	41	3.06
14	대신증권	550,000	25	2.40
15	HMC투자증권	535,000	30	2.34
16	미트레이드증권	450,000	26	1.96
17	한화증권	432,500	30	1.89
18	LIG투자증권	390,000	22	1.70
19	하나대투증권	380,000	20	1.66
2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50,000	14	1.53
2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10,000	19	1.35
22	미래에셋증권	260,000	19	1.13
23	키움증권	195,000	15	0.85
24	KTB투자증권	180,000	14	0.79
25	부국증권	130,000	9	0.57
25	신영증권	130,000	11	0.57
25	유진투자증권	130,000	12	0.57
26	솔로몬투자증권	68,000	7	0.30
27	금호종합금융	55,000	8	0.24
28	NH투자증권	54,000	5	0.24
29	교보증권	50,000	4	0.22
29	한양증권	50,000	4	0.22
30	BS투자증권	30,000	3	0.13
3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0,000	1	0.04

2-7. 일반회사채(SB) 주관

일반회사채(S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310,000	18	13.05
2	우리투자증권	2,190,000	26	12.37
3	한국투자증권	2,172,500	39	12.27
4	KB투자증권	1,977,895	37	11.17
5	삼성증권	1,954,247	20	11.04
6	동양증권	1,815,000	29	10.25
7	신한금융투자	1,412,105	20	7.98
8	SK증권	1,190,000	10	6.72
9	대신증권	670,000	8	3.78
10	한국산업은행	522,995	10	2.95
11	IBK투자증권	280,000	5	1.58
11	현대증권	280,000	2	1.58
12	하나대투증권	270,000	4	1.52
13	미트레이드증권	210,826	5	1.19
14	HMC투자증권	210,000	2	1.19
15	메리츠종합금융증권	60,000	1	0.34
16	미래에셋증권	50,000	2	0.28
17	신영증권	40,000	1	0.23
18	부국증권	30,000	1	0.17
18	키움증권	30,000	1	0.17
18	한화증권	30,000	1	0.17

2-8.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290,000	17	15.17
2	우리투자증권	1,980,000	18	13.12
3	삼성증권	1,934,247	19	12.81
4	한국투자증권	1,912,500	29	12.67
5	동양증권	1,565,000	21	10.37
6	KB투자증권	1,407,895	14	9.33
7	SK증권	1,010,000	6	6.69
8	신한금융투자	972,105	12	6.44
9	대신증권	560,000	5	3.71
10	현대증권	280,000	2	1.85
11	미트레이드증권	210,826	5	1.40
12	HMC투자증권	210,000	2	1.39
13	IBK투자증권	200,000	2	1.32
13	하나대투증권	200,000	1	1.32
14	한국산업은행	172,995	1	1.15
15	메리츠종합금융증권	60,000	1	0.40
16	신영증권	40,000	1	0.26
17	미래에셋증권	30,000	1	0.20
17	키움증권	30,000	1	0.20
17	한화증권	30,000	1	0.20

2-9. 일반회사채(SB) 인수

일반회사채(SB)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우리투자증권	1,950,000	52	11.01
2	한국투자증권	1,735,000	76	9.80
3	삼성증권	1,732,573	46	9.79
4	KB투자증권	1,395,000	53	7.88
5	신한금융투자	1,350,000	40	7.62
6	SK증권	1,300,000	20	7.34
7	대우증권	1,200,000	49	6.78
8	동양증권	1,050,000	41	5.93
9	한국산업은행	792,995	20	4.48
10	현대증권	630,000	31	3.56
11	IBK투자증권	550,000	25	3.11
11	하이투자증권	550,000	27	3.11
12	대신증권	520,000	23	2.94
13	HMC투자증권	475,000	24	2.68
14	이트레이드증권	360,000	19	2.03
15	하나대투증권	350,000	17	1.98
16	한화증권	330,000	25	1.86
17	LIG투자증권	320,000	17	1.81
18	미래에셋증권	240,000	17	1.36
19	동부증권	165,000	13	0.93
2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60,000	7	0.90
21	키움증권	155,000	11	0.88
22	신영증권	100,000	8	0.56
23	유진투자증권	90,000	8	0.51
24	부국증권	60,000	3	0.34
25	KTB투자증권	40,000	3	0.23
25	솔로몬투자증권	40,000	4	0.23
26	한양증권	30,000	3	0.17
27	금호종합금융	25,000	3	0.14
2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0,000	1	0.06

2-10. 여전채(FB) 주관

여전채(F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부증권	787,000	15	15.13
2	한국투자증권	725,000	18	13.94
3	현대증권	587,000	19	11.28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70,000	13	10.96
5	SK증권	467,000	9	8.98
6	IBK투자증권	384,000	12	7.38
7	동양증권	360,000	12	6.92
8	한화증권	232,500	3	4.47
9	삼성증권	220,000	5	4.23
10	신한금융투자	160,000	4	3.08
10	이트레이드증권	160,000	2	3.08
11	KB투자증권	105,000	3	2.02
12	LIG투자증권	100,000	3	1.92
13	하이투자증권	88,000	3	1.69
14	대우증권	75,000	3	1.44
15	KTB투자증권	60,000	2	1.15
16	우리투자증권	50,000	2	0.96
17	교보증권	30,000	1	0.58
18	금호종합금융	15,000	2	0.29
1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0,000	1	0.19
19	하나대투증권	10,000	1	0.19
20	NH투자증권	7,000	1	0.13

2-11. 여전채(FB) 대표주관

여전채(FB) 대표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부증권	787,000	15	16.18
2	한국투자증권	725,000	18	14.91
3	현대증권	567,000	18	11.66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40,000	11	11.10
5	SK증권	410,000	8	8.43
6	IBK투자증권	364,000	10	7.48
7	동양증권	340,000	11	6.99
8	한화증권	232,500	3	4.78
9	삼성증권	190,000	3	3.91
10	이트레이드증권	160,000	2	3.29
11	신한금융투자	120,000	2	2.47
12	LIG투자증권	100,000	3	2.06
13	KB투자증권	85,000	2	1.75
14	KTB투자증권	60,000	2	1.23
15	하이투자증권	58,000	1	1.19
16	우리투자증권	50,000	2	1.03
17	대우증권	35,000	2	0.72
18	교보증권	30,000	1	0.62
1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0,000	1	0.21

2-12. 여전채(FB) 인수

여전채(FB)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현대증권	547,000	33	10.51
2	동부증권	537,000	28	10.32
3	IBK투자증권	434,000	21	8.34
4	SK증권	407,000	16	7.82
5	한국투자증권	395,000	27	7.59
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40,000	13	6.54
7	삼성증권	260,000	17	5.00
8	신한금융투자	220,000	12	4.23
9	동양증권	200,000	14	3.84
10	대우증권	190,000	12	3.65
11	하이투자증권	168,000	11	3.23
1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50,000	12	2.88
13	KTB투자증권	140,000	11	2.69
13	우리투자증권	140,000	11	2.69
13	한국산업은행	140,000	7	2.69
14	KB투자증권	130,000	7	2.50
15	한화증권	102,500	5	1.97
16	이트레이드증권	90,000	7	1.73
17	LIG투자증권	70,000	5	1.35
17	부국증권	70,000	6	1.35
18	HMC투자증권	60,000	6	1.15
19	NH투자증권	54,000	5	1.04
20	교보증권	50,000	4	0.96
21	유진투자증권	40,000	4	0.77
21	키움증권	40,000	4	0.77
22	BS투자증권	30,000	3	0.58
22	금호종합금융	30,000	5	0.58
22	대신증권	30,000	2	0.58
22	신영증권	30,000	3	0.58
22	하나대투증권	30,000	3	0.58
23	솔로몬투자증권	28,000	3	0.54
24	미래에셋증권	20,000	2	0.38
24	한양증권	20,000	1	0.38
2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0,000	1	0.19

2-13.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신한금융투자	857,000	22	17.68
2	하나대투증권	805,000	27	16.60
3	SK증권	570,000	17	11.76
4	KB투자증권	528,550	14	10.90
5	삼성증권	431,200	11	8.89
6	현대증권	338,610	14	6.98
7	한국산업은행	330,000	4	6.81
8	교보증권	240,000	12	4.95
9	대우증권	203,000	11	4.19
10	한화증권	191,430	5	3.95
11	한국투자증권	150,000	1	3.09
12	우리투자증권	98,683	3	2.04
13	동양증권	40,000	1	0.83
14	HMC투자증권	30,000	5	0.62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0,000	3	0.41
16	이트레이드증권	15,000	2	0.31

2-14.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신한금융투자	857,000	22	33.56
2	하나대투증권	395,000	9	15.47
3	KB투자증권	288,550	4	11.30
4	한화증권	191,430	5	7.50
5	SK증권	175,000	8	6.85
6	삼성증권	151,200	1	5.92
7	한국투자증권	150,000	1	5.87
8	우리투자증권	98,683	3	3.86
9	현대증권	98,610	3	3.86
10	대우증권	43,000	6	1.68
11	동양증권	40,000	1	1.57
12	HMC투자증권	30,000	5	1.17
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0,000	3	0.78
14	이트레이드증권	15,000	2	0.59

2-15.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하나대투증권	805,000	27	16.60
2	SK증권	570,000	17	11.76
3	신한금융투자	556,000	22	11.47
4	KB투자증권	508,550	14	10.49
5	삼성증권	431,200	11	8.89
6	한국산업은행	400,000	8	8.25
7	대우증권	354,000	19	7.30
8	현대증권	338,610	14	6.98
9	교보증권	240,000	12	4.95
10	한화증권	191,430	5	3.95
11	한국투자증권	150,000	1	3.09
12	LIG투자증권	100,000	5	2.06
13	우리투자증권	98,683	3	2.04
14	동양증권	40,000	1	0.83
15	HMC투자증권	30,000	5	0.62
1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0,000	3	0.41
17	미트레이드증권	15,000	2	0.31

2-16.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현황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현황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삼성	1,400,000	7	12.20
2	지에스	950,000	5	8.28
3	엘지	850,000	8	7.40
4	현대자동차	840,000	7	7.32
5	동국제강	762,995	4	6.65
6	한진	756,423	5	6.59
7	한국전력공사	600,000	6	5.23
8	현대	570,000	4	4.97
9	롯데	500,000	2	4.36
9	현대중공업	500,000	1	4.36
10	에스케이	480,000	5	4.18
11	두산	450,000	4	3.92
12	신세계	400,000	1	3.48
13	에스티엑스	280,000	2	2.44
14	대성	250,000	3	2.18
14	대우건설	250,000	2	2.18
15	한국투자금융	230,000	1	2.00
16	동양	220,000	2	1.92
17	코오롱	170,000	4	1.48
18	씨제이	150,000	2	1.31
18	한화	150,000	2	1.31
18	효성	150,000	2	1.31
19	금호아시아나	120,000	1	1.05
19	한진중공업	120,000	1	1.05
20	웅진	110,000	2	0.96
21	세아	100,000	1	0.87
22	엘에스	80,000	2	0.70
23	동부	40,000	1	0.35

2-17. 여전채(FB) 발행규모 상위 기업

여전채(FB) 발행규모 상위 기업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우리파이낸셜	260,000	6	26.53
2	아주캐피탈	250,000	7	25.51
3	삼성카드	210,000	10	21.43
4	한국캐피탈	140,000	10	14.29
5	엔에이치캐피탈(주)	120,000	7	12.24

2-18. 회사채 발행규모 상위 30개 기업

회사채 발행규모 상위 기업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GS칼텍스(주)	850,000	3	6.25	19	CJ E&M	100,000	1	0.74
2	삼성중공업	700,000	2	5.15	19	DGB금융지주	100,000	1	0.74
3	동국제강	642,995	3	4.73	19	GS리테일	100,000	2	0.74
4	지에스에너지(주)	600,000	3	4.41	19	LG이노텍	100,000	2	0.74
4	한국수력원자력(주)	600,000	6	4.41	19	SK가스	100,000	1	0.74
5	현대중공업	500,000	1	3.68	19	두산건설	100,000	2	0.74
6	대한항공	496,423	3	3.65	19	세아베스틸	100,000	1	0.74
7	현대상선	470,000	3	3.46	19	오리온	100,000	2	0.74
8	삼성물산	400,000	2	2.94	19	우리금융	100,000	1	0.74
8	이마트	400,000	1	2.94	19	현대건설	100,000	1	0.74
8	현대제철	400,000	2	2.94	19	현대엘리베이	100,000	1	0.74
9	오일허브코리아머수(주)	360,000	4	2.65	19	호텔신라	100,000	1	0.74
10	SK브로드밴드	320,000	3	2.35	20	코오롱글로벌	90,000	2	0.66
11	LG화학	300,000	2	2.21	21	STX	80,000	1	0.59
11	롯데물산(주)	300,000	1	2.21	21	코오롱인더	80,000	2	0.59
11	신한지주	300,000	2	2.21	22	동양증권	70,000	1	0.51
12	대우건설	250,000	2	1.84	23	SK케미칼	60,000	1	0.44
13	한국금융지주	230,000	1	1.69	23	계룡건설	60,000	1	0.44
14	LG유플러스	200,000	1	1.47	23	대신증권	60,000	1	0.44
14	STX엔진	200,000	1	1.47	23	한진	60,000	1	0.44
14	두산인프라코어	200,000	1	1.47	24	CJ프레시웨이	50,000	1	0.37
14	롯데칠성	200,000	1	1.47	24	LG상사	50,000	1	0.37
14	제일모직	200,000	2	1.47	24	LG생명과학	50,000	1	0.37
14	한진해운	200,000	1	1.47	24	LS네트웍스	50,000	1	0.37
14	현대하이스코	200,000	2	1.47	24	대성에너지	50,000	1	0.37
15	LG생활건강	150,000	1	1.10	24	대성홀딩스	50,000	1	0.37
15	대성산업	150,000	1	1.10	24	삼양홀딩스	50,000	1	0.37
15	두산중공업	150,000	1	1.10	24	쌍용양회	50,000	1	0.37
15	한국타이어	150,000	2	1.10	24	한미약품	50,000	1	0.37
15	한화케미칼	150,000	2	1.10	25	동부건설	40,000	1	0.29
15	효성	150,000	2	1.10	25	한신공영	40,000	1	0.29
16	현대위아	140,000	2	1.03	26	가온전선	30,000	1	0.22
17	아시아나항공	120,000	1	0.88	26	무림페이퍼	30,000	1	0.22
17	유니온스틸	120,000	1	0.88	26	일진전기	30,000	1	0.22
17	한진중공업	120,000	1	0.88	26	크라운제과	30,000	1	0.22
18	웅진홀딩스	110,000	2	0.81	26	풀무원홀딩스	30,000	1	0.22
18	한라건설	110,000	1	0.81	27	한솔테크닉스	20,000	1	0.15
					28	케이디씨	1,000	1	0.01

3. M&A

3-1. 기업인수 재무자문 Completed(buyout기준) 3-2. 기업인수 재무자문 Announced(buyout기준)

기업인수 재무자문 Complet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크레디트스위스	7,290,300	2
2	하나대투증권	3,915,600	1
3	BofA메릴린치	3,374,700	1
3	NH투자증권	3,374,700	1
3	맥쿼리증권	3,374,700	1
3	신한금융투자	3,374,700	1
3	우리투자증권	3,374,700	1
3	한국산업은행	3,374,700	1
4	안진	712,560	7
5	대우증권	540,000	4
6	KB투자증권	170,000	1
7	HSBC	108,022	1
8	삼성	91,801	3
9	삼일	79,300	3
10	홍정	5,800	1

기업인수 재무자문 Announc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삼일	1,029,222	4
2	안진	340,000	2
3	KB투자증권	170,000	1
3	대우증권	170,000	1
3	우리투자증권	170,000	1
4	골드만삭스	147,000	1
5	HSBC	108,022	1
6	HMC투자증권	67,000	1
6	로스차일드	67,000	1
6	삼성증권	67,000	1
7	삼성	39,364	2
8	한영	25,000	1
9	홍정	5,800	1

3-3. 기업인수 회계자문 Completed(buyout기준) 3-4. 기업인수 회계자문 Announced(buyout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Complet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삼정	7,375,801	4
2	한영	3,482,722	2
3	안진	2,536,570	8
4	대주	540,000	4
5	삼일	137,000	4
6	홍정	5,800	1

기업인수 회계자문 Announc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안진	1,362,722	5
2	삼일	1,078,722	5
3	대주	340,000	2
4	한영	108,022	1
5	삼정	33,064	1
6	홍정	5,800	1

3-5. 기업인수 법률자문 Completed(buyout기준) 3-6. 기업인수 법률자문 Announced(buyout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Complet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8,923,554	14
2	태평양	7,493,300	6
3	광장	4,698,459	10
4	Linklaters	3,915,600	1
5	세종	3,438,950	12
6	을촌	1,155,134	6
7	KCL	21,300	3
8	원	17,000	1
9	화우	15,411	3
10	현	6,000	1

기업인수 법률자문 Announced(buyout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1,882,459	10
2	을촌	949,922	1
2	한결	949,922	1
3	세종	399,650	5
4	광장	348,239	6
5	태평양	237,000	2
6	바른	170,000	1
7	지평지성	25,500	1
8	KCL	16,800	3
9	화우	10,793	1
10	현	6,000	1

3-7. 기업인수 재무자문 Completed(통합기준)

3-8. 기업인수 재무자문 Announced(통합기준)

기업인수 재무자문 Complet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크레디트스위스	7,290,300	2
2	하나대투증권	3,915,600	1
3	BofA메릴린치	3,374,700	1
3	NH투자증권	3,374,700	1
3	맥쿼리증권	3,374,700	1
3	신한금융투자	3,374,700	1
3	우리투자증권	3,374,700	1
3	한국산업은행	3,374,700	1
4	삼성	1,158,801	4
5	안진	712,560	7
6	대우증권	540,000	4
7	인터베스트	235,000	1
8	KB투자증권	170,000	1
9	HSBC	108,022	1
10	삼일	89,300	4
11	Bain capital	64,269	1
12	충정	5,800	1
13	JPMorgan	675	1
13	골드만삭스	675	1
13	삼성증권	675	1

기업인수 재무자문 Announc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삼일	1,039,222	5
2	안진	340,000	2
3	인터베스트	235,000	1
4	KB투자증권	170,000	1
4	대우증권	170,000	1
4	우리투자증권	170,000	1
5	골드만삭스	147,000	1
6	HSBC	108,022	1
7	HMC투자증권	67,000	1
7	로스차일드	67,000	1
7	삼성증권	67,000	1
8	Bain capital	64,269	1
9	삼성	39,364	2
10	한영	25,000	1
11	충정	5,800	1

3-9. 기업인수 회계자문 Completed(통합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Complet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삼정	7,490,745	7
2	한영	3,482,722	2
3	안진	2,771,570	9
4	대주	540,000	4
5	삼일	147,675	6
6	홍정	5,800	1

3-10. 기업인수 회계자문 Announced(통합기준)

기업인수 회계자문 Announc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안진	1,597,722	6
2	삼일	1,088,722	6
3	대주	340,000	2
4	삼정	147,333	3
5	한영	108,022	1
6	홍정	5,800	1

3-11. 기업인수 법률자문 Completed(통합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Complet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10,419,499	17
2	태평양	9,573,312	14
3	광장	5,333,456	17
4	Linklaters	3,915,600	1
5	세종	3,813,725	20
6	을촌	1,165,134	7
7	현	78,000	2
8	지평지성	51,990	2
9	화우	32,253	4
10	KCL	29,475	5
11	원	17,000	1
12	Yoshimine Law Office	73	1

3-12. 기업인수 법률자문 Announced(통합기준)

기업인수 법률자문 Announced(통합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2,311,404	12
2	태평양	1,260,684	9
3	광장	977,560	11
4	을촌	959,922	2
5	한결	949,922	1
6	세종	645,835	9
7	바른	170,000	1
8	현	78,000	2
9	지평지성	25,500	1
10	KCL	24,300	4
11	화우	10,793	1
12	Yoshimine Law Office	73	1

3-13. 기업합병 재무자문 Completed

기업합병 재무자문 Completed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ACPC	56,339	1

3-14. 기업합병 재무자문 Announced

기업합병 재무자문 Announced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ACPC	23,000	1

3-15. 기업합병 법률자문 Completed

기업합병 법률자문 Completed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김앤장	287,019,494	4
2	광장	350,210	2
3	태평양	293,000	3
4	세종	217,847	2

3-16. 기업합병 법률자문 Announced

기업합병 법률자문 Announced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1	광장	13,804,163	2
2	세종	184,847	1
3	김앤장	4,746	2

4. PEF

4-1. 역대 청산 PEF 운용실적 순위

순위	PEF명	GP명	투자 기간	등록일	해산 연도	총 약정액 (억원)	투자금 (억원)	투자 수익금 (억원)	총투자 수익률 (투자금대비,%)	연 수익률 (%)
1	튜브제일호	튜브투자자문	1.33년	08-02-26	09-06-26	106	100	597	597.00	448.36
2	에프지텐	파이낸스그룹텐	0.86년	05-12-27	06-11-08	363	363	221	60.88	70.32
3	페트라	-산한캐피탈 -마이엠엠인베스트먼트	1.93년	09-12-15	11-11-21	420	400	313	78.25	40.46
4	우리제일호	우리은행	0.75년	04-12-27	05-09-30	2,100	420	116	27.62	36.39
5	에스브이제일호	에스브이창업투자	1.01년	09-07-30	10-08-03	100	75	19	25.33	25.06
6	케이디비씨제이케이엘	-산은캐피탈 -제이케이엘파트너스	1.42년	09-10-28	11-03-31	450	385	105	27.27	19.18
7	에이치엔큐국민연금제일호	한국 H&Q AP	5.05년	05-11-02	10-11-22	3,000	2,430	2,337	96.17	19.02
8	미래에셋파트너스일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4.97년	04-12-27	09-12-16	1,400	1,297	1,118	86.20	17.33
9	마이엠엠인베스트먼트1호	마이엠엠인베스트먼트	1.09년	09-06-30	10-08-03	385	250	40	16.00	14.64
10	마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제2호	-중소기업은행 -SK증권	2.48년	07-08-03	10-01-25	171	150	46	30.67	12.35
11	케이디비밸류제이호	산업은행	4.90년	06-11-03	11-09-27	4,000	3,333	1,955	58.66	11.97
12	리더스	-SK증권 -산은캐피탈	2.87년	08-05-02	11-03-18	3,100	2,899	905	31.22	10.85
13	케이디비밸류제일호	산업은행	4.89년	05-05-09	10-03-29	3,000	2,752	878	31.90	6.52
14	기업은행케이티비제일호	-중소기업은행 -KTB투자증권	4.98년	05-05-31	10-05-26	1,200	1,287	321	24.94	5.00
15	유진자산제일호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3.87년	06-11-28	10-10-11	250	220	28	12.73	3.29
16	씨에프인베스트먼트제일호	루터머소시에잇코리아	3.31년	07-07-13	10-11-05	501	624	39	6.25	1.88
	에스비아이피제일호	에스비아이프라이빗에퀴 티	1.5년	09-09-23	11-03-16	500	50	0	0	0
	엔플러스일호	엔조이플러스	2.33년	08-01-02	11-05-02	233	20	0	0	0
	지앤에이제이호	글로벌앤머소시에미츠		10-03-12	2010년	203		투자집행없이 해산		
	한국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	한국투자증권		11-01-26	2011년	173		투자집행없이 해산		
	씨이피제이호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08-09-11	2010년	400		투자집행없이 해산		
	데본셔	데본셔코리아		05-02-15	2009년	300		투자집행없이 해산		
	칸서스인베스트먼트일호	칸서스자산운용		05-03-29	2006년	3,900		투자집행없이 해산		

5. ELS / DLS

5-1. ELS 전체 순위

ELS 전체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929,872	522	15.12
2	우리투자증권	1,397,895	362	10.95
3	하나대투증권	1,321,331	303	10.35
4	신한금융투자	1,230,366	458	9.64
5	미래에셋증권	1,065,995	364	8.35
6	한국투자증권	932,807	310	7.31
7	동양증권	858,621	241	6.73
8	현대증권	748,184	260	5.86
9	대신증권	674,685	188	5.29
10	신영증권	514,833	146	4.03
11	삼성증권	499,133	313	3.91
12	IBK투자증권	276,188	104	2.16
13	한화증권	254,023	240	1.99
14	교보증권	220,663	88	1.73
15	NH투자증권	196,058	34	1.54
16	SK증권	186,462	111	1.46
17	KB투자증권	169,753	59	1.33
18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57,387	109	1.23
19	동부증권	71,278	37	0.56
20	키움증권	49,944	30	0.39
21	맥쿼리증권	5,852	6	0.05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915	3	0.01

5-2. DLS 전체 순위

DLS 전체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333,493	91	25.51
2	우리투자증권	1,130,822	115	21.63
3	현대증권	620,440	91	11.87
4	하나대투증권	289,389	23	5.54
5	NH투자증권	268,576	36	5.14
6	한국투자증권	227,337	39	4.35
7	삼성증권	222,417	34	4.25
8	신한금융투자	189,612	16	3.63
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62,767	33	3.11
10	대신증권	156,331	8	2.99
11	교보증권	150,000	10	2.87
12	한화증권	132,895	23	2.54
13	동부증권	130,699	8	2.50
14	미래에셋증권	71,236	27	1.36
15	동양증권	65,363	11	1.25
16	신영증권	60,633	10	1.16
17	SK증권	15,567	7	0.30

5-3. ELS 공모 순위

ELS 공모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미래에셋증권	755,730	220	14.79
2	대우증권	753,983	203	14.75
3	우리투자증권	543,211	170	10.63
4	동양증권	507,031	188	9.92
5	한국투자증권	491,980	223	9.63
6	신한금융투자	424,506	132	8.31
7	현대증권	309,726	103	6.06
8	삼성증권	299,386	126	5.86
9	신영증권	233,778	41	4.57
10	대신증권	213,228	67	4.17
11	하나대투증권	188,312	99	3.68
12	교보증권	125,903	18	2.46
13	KB투자증권	108,143	10	2.12
14	한화증권	59,029	36	1.15
15	에이치엠씨투자증권	37,578	38	0.74
16	IBK투자증권	19,843	2	0.39
17	SK증권	11,378	19	0.22
18	동부증권	10,966	14	0.21
19	키움증권	9,174	9	0.18
20	NH투자증권	7,111	4	0.14
2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915	3	0.02

5-4. DLS 공모 순위

DLS 공모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우리투자증권	85,458	19	23.67
2	대우증권	78,823	29	21.83
3	한국투자증권	44,120	19	12.22
4	삼성증권	39,959	8	11.07
5	미래에셋증권	34,354	9	9.51
6	대신증권	30,000	1	8.31
7	한화증권	19,263	7	5.33
8	현대증권	13,705	7	3.80
9	신한금융투자	8,112	3	2.25
10	신영증권	4,645	1	1.29
11	NH투자증권	1,330	1	0.37
12	동부증권	699	1	0.19
13	동양증권	632	2	0.18

5-5. ELS 사모 순위

ELS 사모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175,889	319	15.37
2	하나대투증권	1,133,019	204	14.81
3	우리투자증권	854,684	192	11.17
4	신한금융투자	805,859	326	10.53
5	대신증권	461,457	121	6.03
6	한국투자증권	440,827	87	5.76
7	현대증권	438,458	157	5.73
8	동양증권	351,590	53	4.60
9	미래에셋증권	310,266	144	4.06
10	신영증권	281,056	105	3.67
11	IBK투자증권	256,346	102	3.35
12	삼성증권	199,747	187	2.61
13	한화증권	194,994	204	2.55
14	NH투자증권	188,947	30	2.47
15	SK증권	175,084	92	2.29
16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19,810	71	1.57
17	교보증권	94,760	70	1.24
18	KB투자증권	61,611	49	0.81
19	동부증권	60,312	23	0.79
20	키움증권	40,770	21	0.53
21	맥쿼리증권	5,852	6	0.08

5-6. DLS 사모 순위

DLS 사모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254,670	62	25.78
2	우리투자증권	1,045,363	96	21.48
3	현대증권	606,735	84	12.47
4	하나대투증권	289,389	23	5.95
5	NH투자증권	267,246	35	5.49
6	한국투자증권	183,217	20	3.76
7	삼성증권	182,458	26	3.75
8	신한금융투자	181,500	13	3.73
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62,767	33	3.34
10	교보증권	150,000	10	3.08
11	동부증권	130,000	7	2.67
12	대신증권	126,331	7	2.60
13	한화증권	113,632	16	2.34
14	동양증권	64,731	9	1.33
15	신영증권	55,988	9	1.15
16	미래에셋증권	36,882	18	0.76
17	SK증권	15,567	7	0.32

5-7. 전체 순위

전체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3,263,365	613	18.14
2	우리투자증권	2,528,717	477	14.06
3	하나대투증권	1,610,720	326	8.95
4	신한금융투자	1,419,978	474	7.89
5	현대증권	1,368,624	351	7.61
6	한국투자증권	1,160,144	349	6.45
7	미래에셋증권	1,137,231	391	6.32
8	동양증권	923,984	252	5.14
9	대신증권	831,016	196	4.62
10	삼성증권	721,550	347	4.01
11	신영증권	575,466	156	3.20
12	NH투자증권	464,634	70	2.58
13	한화증권	386,918	263	2.15
14	교보증권	370,663	98	2.06
15	IBK투자증권	276,188	104	1.54
16	SK증권	202,029	118	1.12
17	동부증권	201,977	45	1.12
18	KB투자증권	169,753	59	0.94
1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63,682	36	0.91
20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57,387	109	0.87
21	키움증권	49,944	30	0.28
22	맥쿼리증권	5,852	6	0.03

6. FEES

6-1. ECM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ECM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2,828	2	14.70
2	동양증권	2,300	2	11.96
3	우리투자증권	1,817	3	9.45
4	솔로몬투자증권	1,533	2	7.97
5	한양증권	1,422	5	7.39
6	대신증권	1,366	1	7.10
7	키움증권	1,065	2	5.54
8	유진투자증권	898	4	4.67
9	KB투자증권	824	2	4.28
10	교보증권	687	3	3.57
11	한화증권	667	3	3.47
12	현대증권	650	2	3.38
13	이트레이드증권	610	4	3.17
14	부국증권	513	1	2.67
15	한국투자증권	490	2	2.55
16	SK증권	445	2	2.31
17	HMC투자증권	350	1	1.82
18	LIG투자증권	340	1	1.77
19	미래에셋증권	300	1	1.56
20	하나대투증권	100	1	0.52
21	하이투자증권	30	1	0.16

6-2. 기업공개(IP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기업공개(IP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대우증권	1,960	1	31.56
2	우리투자증권	1,807	2	29.10
3	KB투자증권	484	1	7.80
4	SK증권	445	2	7.16
5	HMC투자증권	350	1	5.64
6	현대증권	310	1	4.99
7	교보증권	300	1	4.83
7	미래에셋증권	300	1	4.83
8	동양증권	100	1	1.61
8	하나대투증권	100	1	1.61
9	키움증권	55	1	0.88

6-3. 유상증자(F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유상증자(FO)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솔로몬투자증권	1,533	2	19.69
2	대신증권	1,366	1	17.53
3	한양증권	1,328	2	17.06
4	키움증권	1,011	1	12.98
5	대우증권	868	1	11.15
6	부국증권	513	1	6.59
7	교보증권	387	2	4.96
8	한화증권	327	2	4.20
9	유진투자증권	250	1	3.21
10	한국투자증권	150	1	1.93
11	하이투자증권	30	1	0.39
12	이트레이드증권	15	1	0.19
13	우리투자증권	10	1	0.13

6-4. 주식연계증권(ELB)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주식연계증권(ELB) 주관·주선·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동양증권	2,200	1	42.02
2	유진투자증권	648	3	12.37
3	이트레이드증권	595	3	11.36
4	KB투자증권	340	1	6.49
4	LIG투자증권	340	1	6.49
4	한국투자증권	340	1	6.49
4	한화증권	340	1	6.49
4	현대증권	340	1	6.49
5	한양증권	93	3	1.78

6-5. DCM 주관·인수 수수료

DCM 주관·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6,208	25,33	9.78
2	우리투자증권	5,666	24,33	8.93
3	삼성증권	5,074	19,01	8.00
4	SK증권	4,874	17,94	7.68
5	KB투자증권	4,794	23,20	7.55
6	신한금융투자	4,555	19,85	7.18
7	한국산업은행	4,418	26,66	6.96
8	대우증권	3,906	21,08	6.15
9	동양증권	3,724	26,66	5.87
10	현대증권	2,814	19,63	4.43
11	IBK투자증권	2,184	23,02	3.44
12	하나대투증권	1,788	15,79	2.82
13	하이투자증권	1,749	23,95	2.76
14	대신증권	1,450	25,20	2.28
15	HMC투자증권	1,449	21,11	2.28
16	한화증권	1,292	23,40	2.04
17	이트레이드증권	1,170	24,82	1.84
18	LIG투자증권	1,105	22,04	1.74
19	동부증권	1,092	16,98	1.72
20	미래에셋증권	741	28,11	1.17
21	키움증권	578	29,53	0.91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495	15,26	0.78
23	신영증권	340	25,45	0.54
24	KTB투자증권	302	17,14	0.48
25	교보증권	299	10,69	0.47
26	유진투자증권	282	21,08	0.44
2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70	8,82	0.43
28	부국증권	255	18,33	0.40
29	솔로몬투자증권	207	30,71	0.33
30	금호종합금융	136	25,13	0.21
31	한양증권	93	18,25	0.15
32	NH투자증권	92	17,00	0.14
33	BS투자증권	45	15,00	0.07
34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0	20,00	0.03

6-6. 일반 회사채 주관·인수 수수료

일반 회사채 주관·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우리투자증권	5,448	27,38	10.53
2	한국투자증권	5,184	28,88	10.02
3	삼성증권	4,321	25,41	8.35
4	KB투자증권	4,004	28,75	7.74
5	신한금융투자	3,829	28,60	7.40
6	SK증권	3,809	28,20	7.36
7	한국산업은행	3,728	35,40	7.21
8	대우증권	3,372	27,78	6.52
9	동양증권	3,338	30,10	6.45
10	현대증권	1,897	29,65	3.67
11	IBK투자증권	1,623	28,96	3.14
12	하이투자증권	1,585	28,70	3.06
13	대신증권	1,408	25,78	2.72
14	HMC투자증권	1,376	26,92	2.66
15	이트레이드증권	990	28,16	1.91
16	하나대투증권	958	26,29	1.85
17	LIG투자증권	940	28,82	1.82
18	한화증권	894	27,36	1.73
19	미래에셋증권	726	30,53	1.40
20	키움증권	448	28,45	0.87
21	동부증권	430	24,23	0.83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50	22,86	0.68
23	신영증권	295	29,38	0.57
24	유진투자증권	232	25,38	0.45
25	부국증권	160	26,67	0.31
26	솔로몬투자증권	150	37,50	0.29
27	KTB투자증권	85	21,67	0.16
28	금호종합금융	70	30,00	0.14
29	한양증권	53	17,67	0.10
3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5	25,00	0.05

6-7.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주관·인수 수수료 6-8.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인수 수수료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주관·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현대증권	668	15.12	10.55
2	동부증권	662	13.61	10.46
3	IBK투자증권	561	15.95	8.87
4	한국투자증권	534	15.07	8.44
5	SK증권	495	13.56	7.82
6	동양증권	336	17.57	5.31
7	한국산업은행	260	18.57	4.11
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20	6.92	3.48
9	KTB투자증권	217	15.91	3.43
10	우리투자증권	208	16.27	3.29
11	한화증권	202	18.40	3.20
12	대우증권	170	10.42	2.69
13	신한금융투자	165	8.33	2.61
14	하이투자증권	164	12.27	2.59
15	삼성증권	161	6.76	2.55
16	이트레이드증권	160	19.29	2.53
17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45	10.83	2.29
18	키움증권	130	32.50	2.06
19	KB투자증권	115	9.29	1.82
20	부국증권	95	14.17	1.50
21	NH투자증권	92	17.00	1.45
22	금호종합금융	66	22.20	1.04
23	LIG투자증권	65	11.00	1.03
24	교보증권	59	12.75	0.93
25	솔로몬투자증권	57	21.67	0.90
26	유진투자증권	50	12.50	0.79
27	BS투자증권	45	15.00	0.71
27	신영증권	45	15.00	0.71
28	대신증권	42	18.50	0.66
29	한양증권	40	20.00	0.63
30	HMC투자증권	38	6.33	0.60
31	하나대투증권	25	8.33	0.40
3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0	20.00	0.32
33	미래에셋증권	15	7.50	0.24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하나대투증권	805	10.00	14.87
2	KB투자증권	675	9.14	12.47
3	삼성증권	592	11.18	10.94
4	SK증권	570	10.00	10.53
5	신한금융투자	561	10.23	10.36
6	한국투자증권	491	32.70	9.06
7	한국산업은행	430	11.88	7.94
8	대우증권	364	10.53	6.72
9	현대증권	250	8.07	4.62
10	교보증권	240	10.00	4.43
11	한화증권	195	8.60	3.61
12	LIG투자증권	100	10.00	1.85
13	동양증권	50	13.00	0.92
14	HMC투자증권	35	11.00	0.65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5	11.67	0.46
16	이트레이드증권	20	12.50	0.37
17	우리투자증권	10	1.00	0.18